09:47

이기훈 글·그림

주제	그림책을 읽고 지구 기후환경에 대한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권장 차시	8차시
대상 학년	5~6학년
관련 주제어	지구환경, 공감, 이해, 표현, 미래, 희망, 재활용, 업사이클링
교육 과정 연계	국어 [6국05-02]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사회 [6사08-05] 지구촌의 주요 환경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도덕 [4도04-01]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인간 생명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실과 [6실03-01] 옷의 종류와 용도에 맞게 정리 보관하는 방법을 알고 환경과 관련지어 옷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미술 [6미01-05] 미술 활동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작성	파주 대성동초등학교 박지숙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지구환경에 대한 경고와 인류를 향한 희망을 역동적이면서도 극도로 세밀한 사실주의적 표현에 담아냈습니다. 지구에 종말이 다가오고 그 속에서 희망의 방주를 발견하는 아이가 겪는 상상과, 환경위기에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인류의 현실은 '시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매끄럽게 넘나듭니다. 현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책을 보는 어느 지점에서 상상으로 넘어갔을지 단언하기 어렵지만, 이야기의 끝부분에 이르면 그때서야 독자는 상상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또 타임 루프를 통해 이야기의 앞으로 이어지며 상상인 듯 현실인 듯 모호함 속에 머물게 되는 세련된 장면 구성과 연출에 그야말로 짜릿함과 탄성을 짓게 만드는 그림책입니다.

■ 학습 목표

· 그림책이라는 매체에 알맞은 읽기 방법을 적용하며 읽을 수 있다.
· 그림책을 읽고, 환경문제에 대한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다.
·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 드러나게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이 책은 글 없는 그림책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환경위기시계와 연결해서 그려냈다. 글이 없어서 오롯이 독자의 해석에 맡긴다고 작가가 말하고 있으나 그 주제는 분명히 있다. 그 주제를 학생들과 함께 찾아가 보면 좋겠다. 책을 읽고 난 뒤에 자신에게 와 닿은 장면들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뒷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희망과 절망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부서지는 제목의 타이포그래피에 의해 고조되는 위기의 현실에서 우리가 실천으로 가져가야 할 것들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보고 꾸준한 실천으로 습(習)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책을 읽고 난 후의 느낌과 생각을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환경 위기에 대한 포스터 그리기, 업사이클링,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 홍보 영상 만들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나눌 수 있다.

수업 준비물 필기구, 포스트잇, 색칠도구, 택배박스, 휴대전화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북커버 활용 나만의 스토리 보드 만들기 - 나만의 이야기 만들기 - 이어질 내용 예측하기 - 지구환경 시계에 대해 알아보기	1차시
읽는 중	그림책 내용 파악하기 및 대사 만들기 - 시간의 흐름을 살피면서 읽기 - 등장 인물에게 어울리는 말풍선 만들어 보기 - 인상 깊은 장면 나누기	3차시
읽은 후	이야기 상상하여 꾸미기 - 뒷이야기 만들기 - 환경위기시계를 늦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실천하기 나는야! 지구 지킴이 - 선택 활동하기 환경실천 포스터 만들기/ 실천영상 만들기/ 업사이클링하기/ 북트레일러 만들기 등	4차시

읽기 전

1. 나만의 이야기 만들기

겉싸개 뒤의 8개의 장면을 가지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8개의 장면을 순서 없이 나누어 줍니다.

나만의 순서를 정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책을 읽고 나서 '나만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봅시다.

(읽은 후) 책 내용과 비교해 보거나, 겉싸개 표지를 보면서 순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

2. 내용 예측하기

앞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발견한 것을 이야기해봅시다.

	예: 아이가 수경을 쓰고 있어요. 아이가 무언가 위에서 하늘 위를 보고 있는데 갈매기들이 많이 있어요. 갈매기들이 많이 있는데, 갈매기가 큰 토끼 인형을 물고 있어요. 아이가 있는 곳은 쓰레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인형을 하늘로 던진 것 같아요. 아이가 살려달라고 손을 든 것 같아요. 중간에 하얀 띠처럼 나뉘어 있는데 09:47이라고 써 있어요. 숫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되어있어요. 숫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앞표지를 보여주며 책 제목과 작가 이름, 출판사를 읽어줍니다.

예: 제목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봅니다.

전자시계 느낌이 나요.

그런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좀 벗겨져 있어요.

제목의 의미 생각해보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예: 맞아요. 시간이에요. 9시 47분. 벗겨진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2. 지구 환경위기시계란?

뒷면지에 힌트가 있었어요. 지구 환경위기시계 현재 시각 9시 47분, 12시에 이르면……!

지구 환경위기시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유튜브 소개 (YTN 사이언스)

(2) (집사부일체) 한 장면 보기

: 30년 후 한국 침수 (김해는 사라지고 부산은 반도가 될 수 있대요.)

(1) (2)

환경위기시계란

환경위기시계는 지구환경 파괴에 따라 환경전문가들이 느끼는 인류 생존의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 재단(The Ashahi Glass Foundation)이 리우 환경회의가 열린 1992년부터 전 세계 90여 개국의 정부, NGO, 학계, 기업 등의 환경 전문가를 대상으로 매년 한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위기시계 시간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위기시계 | 기후변화홍보체험관 (gimhae.go.kr) 경남 김해시 홈페이지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책 내용을 예측해봅시다.

예: 9시 47분에 일어나는 지구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책 표지의 아이가 위험에 처해있는 이야기 같아요.

9시 47분이 사라지는 제목을 보면서 지구가 위험해진 것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읽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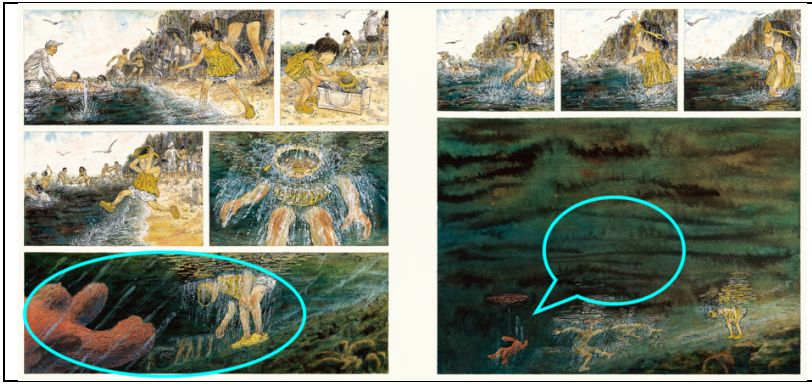
1. 시간을 살펴보면서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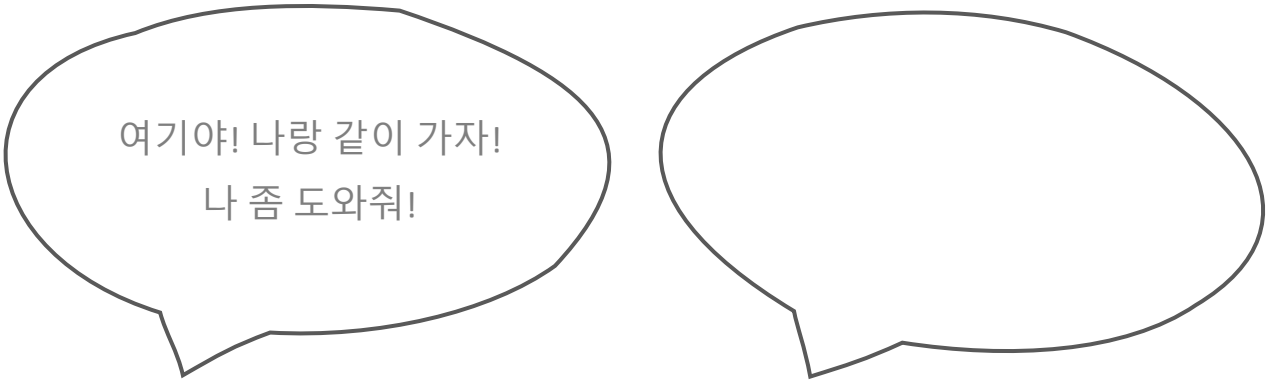
글 없는 그림책 : 짝과 함께 조용히 읽어도 됩니다. 교사와 천천히 장면을 읽어가면서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읽어봐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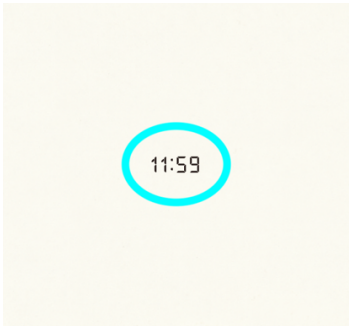
* 여기 제시된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 책은 교사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되 교사의 생각대로 주입하려 하지 말고, 학생들의 생각을 충분이 수용하면서 학생의 속도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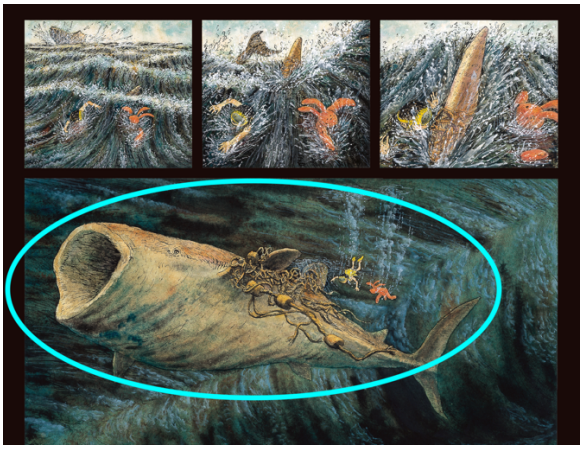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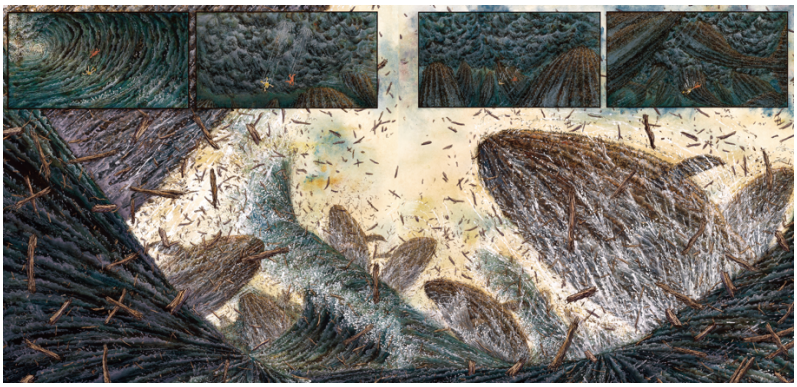
예: 교사 “그림을 읽어나가면서 이상한 장면을 찾아봐도 좋습니다.” “포스트잇에 적어서 표시해봅시다.”.

	(학생) 9시 30분 장면 다음에 여자아이와 토끼 인형이 바닷속에 있는 것을 서로 보고 있어요. -9시 47분에 아이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물에 완전히 젖었고 화장실 안에도 물이 흥건해요. (교사) ‘왜 젖었을까?’ 생각하면서 읽어 봅시다. (학생) 11시 50분에 토끼 인형을 찾아요!

	(교사) 아이를 만난 토끼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 말풍선을 만들어 볼까요?



	(교사) 11시 59분! 아이와 토끼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학생) 동굴? 쓰레기? 둥근 것이 눈처럼 보여요.
	(교사) 12:00 배경이 까맣습니다. 오른쪽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2:00 시 이후에 모든 것들이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12시 이후 달라지는 변화를 깊게 나눠보면 좋습니다.
	왜? 쓰레기 더미 속에 있을까요?

	만약 나라면 저 상황에서 고래상어를 도울 수 있을까? 상처 입은 고래상어를 보니 어떤 마음이 드나요?
	가라앉은 섬과 고래의 눈을 찾아보세요.
	바닷속에 가라앉아있는 비진도 섬. 아빠가 쳐 놓은 텐트는 있지만, 가족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나라면……
	큰 고래가 바닷속 다른 고래들을 깨우고 고래들은 모두 바다 밖으로 나옵니다. 결국, 큰 해일로 도시를 덮칩니다. 자연의 회복력(태풍, 해일은 큰 피해를 주지만 중요한 수자원 공급으로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거나, 대기중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시원한 청소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을 어떤 시선으로 보아야 할까요?

2. 인상 깊은 장면이나 구절 이야기 나누기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을 고르고, 그 장면을 고른 까닭을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책을 읽고 인상에 남는 장면에 나만의 해시태그를 만들어 봅시다.

	#환경 #바다생물 #치유 #고래상어야미안해 이유:결국 아프게 한 건 우리였기에 우리가 환경을 더 사랑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희망 #길 #안내 #안심 #이유: 고래들이 다 사라지고 해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슬펐는데 새롭게 물고기가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살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되었어요.

읽은 후

1. 뒷이야기 만들기/이야기 비교하기

- 읽기 전 활동으로 만들었던 나의 이야기를 읽은 후 비교해봅시다
- 이야기는 다시 9시 47분에서 끝이 납니다. 뒤의 이야기를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나눠봅시다.

2. 환경위기시계를 늦추기 위해서…….

-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 나만의 방법으로 환경위기시계를 늦추는 방법을 친구들과 공유해봅시다.
- 나만의 환경 포스터 만들기/ 카드뉴스 만들기/ 실천영상 만들기/ 지구위기 포스터
  (택배 상자. 재활용품 활용하여)

1) 택배 상자를 이용하여 포스터 만들기

2) 나만의 실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기 (유튜브 참고)

3) 업사이클링 하기: 나만의 애착인형, 가방 만들기

- 업사이클링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 옷, 양말, 버려진 플랜카드, 페타이어 등으로 옷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기업들 알아보기
- 나만의 업사이클링 물건을 만들어 봅시다.

바느질 없이 양말로
인형 만들기 참고 영상

바느질 없이 양말로
눈사람 만들기 참고 영상

4) 북 트레일러 만들기

모둠 친구들에게 인상에 남은 장면으로 북 트레일러를 만들어봅시다.

북 트레일러는 새롭게 출간된 책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말합니다.

북 트레일러는 책에 나오는 문구나 그림, 어울리는 음악 등을 넣어 동영상으로 만듭니다.

모둠 친구들이 고른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습니다.

이때 북 트레일러의 길이를 고려하여 만듭니다.

컷으로 나누어진 페이지는 전체를 찍기보다는 순서에 맞게 한 컷씩 찍습니다.

모둠 친구들이 고른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을 고릅니다.

그 음악을 배경으로 하여 찍은 사진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북 트레일러를 완성해봅시다.

완성한 북 트레일러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감상평을 들어봅시다.

* 전체 쪽수 116쪽의 10% 범위 이내(11쪽)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찍은 사진과 만든 북 트레일러는 공개된 사이트에 탑재하지 않습니다.
작가와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